

# QSCC II+의 진단정확률 향상을 위한 환자군 연구

강민수 · 오지원 · 이혜리 · 이준희\*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사상체질과

## Abstract

### Patient Group Study to Improve the Accuracy of QSCC II+

Minsu Kang · Jiwon Oh · Hyeri Lee · Junhee Lee\*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 Background

Several attempts have been made to accurately diagnose the Sasang Constitution. One of these attempts is to use a questionnaire.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QSCC)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and now used as QSCC II+. This study was designed to improve the accuracy of the revised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QSCC II+).

#### Method

1,054 people were gathered for this study and analyzed to check discrimination ability of current discriminant function of QSCC II+. They were outpatients who visited the hospital and the constitution was confirmed by the specialis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Results

Accuracy of QSCC II+ at Soeumin was improved from 74.9% to 79.3%,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Soyangin and Taeumin.

#### Conclusion

New discriminant function was constructed through discriminant analysis. And the accuracy of QSCC II+ was generally improved, especially in Soeumin.

*Key Words*: Sasang constitution, QSCC II+, Discriminant analysis

## I. 緒論

사상체질의학에서 체질의 진단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지만 한의사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상이한 체질을 판정받는 경우가 발생하여 체질진단의 객관성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체질진단 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체형계측 방법<sup>1,2</sup>, 유전자 분석 방법<sup>3,4</sup>, 목소리 특징 분석 방법<sup>5</sup>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상에서는 적용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 있다. 이에 그 대안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방법이 제시되었고<sup>6</sup>, 이 설문지는 사상체질분류검사(Questionnaire for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QSCC)로 명명되었다.

QSCC는 처음 개발된 후 진단정확률이 높지 않으면서 평가 절차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제시되어 이를 보완한 후 QSCC II가 개발되었다. 이후 QSCC II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 체질별로 유의성이 있는 척도 문항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체질별 판별식이 개발되었다. QSCC와 마찬가지로 QSCC II에 대해서도 후속 연구를 통해 타당 및 진단정확률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QSCC II의 문항수가 121개로 지나치게 많은 점, 일부 문항에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가 있어 설문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된 사상체질분류검사지(QSCC II+)가 개발되어 현재까지 임상에서 활용되고 있다.

QSCC II+는 기존에 만들어진 QSCC, QSCC II와는 달리 5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설문에 응답하기 비교적 용이한 장점이 있다. QSCC II+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루어진 연구들은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그 표본의 수가 적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QSCC II+의 진단정확률을 향

상시키기 위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체질척도의 항목들을 검증하고, 판별식의 진단정확률을 알아보고 각각의 체질척도 항목에 대한 체질별 응답률을 분석하여 체질척도 항목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II. 研究方法

본 연구에서는 QSCC II+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판별식이 실제 체질진단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보고, 각 체질별 항목에 대해 응답률을 분석하여 현재 사용되는 척도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2003년 10월 1일부터 2018년 5월 31일까지 ○○대학교한방병원 사상체질과에 내원한 외래 환자 중 QSCC II+를 하고 사상체질과 의료진의 진단 및 약물치료를 통하여 체질이 확정된 자 1,054명으로 하였다. 선정기준은 1) 초진 당시 만 19세 이상인 자, 2) 전체 투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자로 하였으며, 제외 기준은 1) 진료기간 중 체질진단이 변경된 자, 2) QSCC II+ 작성이 미비한 자로, 12개의 객관식 문항 중 미응답 수가 4개 이상인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 하였다.

대상자들이 작성한 답안은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척도항목에 대한 각 체질별 응답률을 분석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시행하기 위하여 연구 시작 전 ○○대학교한방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IRB No. 2018-10-008-002).

## III. 結果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적용된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다. 전체 1,054명 중 남성은 355명, 여성

은 699명이었다. 소음인의 경우 남성은 31명, 여성이 111명으로 나타났고, 소양인 중에서는 남성이 179명, 여성이 250명이었다. 태음인의 경우에는 남성이 141명, 여성이 334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양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각각 4명이었다. 또한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체질별 평균연령은 소음인 43.09세, 소양인은 48.43세, 태음인은 46.05세, 태양인은 48.33세로 각각 나타났으며, 전체 평균연령은 46.64세였다.

그리고 연령별 분포에서는 50대가 21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30대는 212명, 40대 208명, 60대 188명, 20대 155명, 70대 54명, 10대 13명, 80대 7명 순으로 나타났다.

## 2. QSCC II+에 의한 진단정확률

본 연구에서는 통계학 분야에서 정확도(Accuracy)로 정의되는 척도를 진단정확률로 정의하였다. 정확도는 진단검사서 올바른 검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Table 3에 따르면, 정확도는 (A+D)/(A+B+C+D)로 계산된다. 이 척도는 민감도와 특이도의 개념을 모두 포괄한다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척도로 판단된다.

이 척도를 바탕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판별식의 체질별 진단정확률을 계산하였다.

QSCC II+ 결과는 소음이고 실제 진단된 체질이 소음인인 경우는 총 122명이었다. 또한 QSCC II+ 결과가

Table 1. Distribution of Sex and Ag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Soeumin	Soyangin	Taeumin	Taeyangin	Total	
Sex	M	31	179	141	4	355
	F	111	250	334	4	699
	Total	142	429	475	8	1054
Age	43.09±13.67	48.43±16.06	46.05±14.35	48.33±13.1	46.64±15.06	

Table 2. Age Distribution of Actual Sasangin Group

Age	Soeumin	Soyangin	Taeumin	Taeyangin	Total
10s	1	5	7		13
20s	24	67	64		155
30s	39	68	102	3	212
40s	35	74	98	1	208
50s	25	85	106	1	217
60s	11	92	82	3	188
70s	6	34	14		54
80s	1	4	2		7
Total	142	429	475	8	1,054

Table 3. General Binary Classifiers for Diagnostic Test

Test result	True disease state		
		Disease	No disease
	Disease	A	B
	No disease	C	D
	Total	A+C	B+D

소음인 아니면서 실제 진단된 체질이 소음인이 아닌 경우는 총 667명으로 소음인의 진단정확률은 74.9%로 나타났다. QSCC II+ 결과가 소양이면서 실제 진단된 체질이 소양인인 경우는 총 169명이었다. QSCC II+ 결과가 소양이 아니면서 실제 진단된 체질이 소양인이 아닌 경우는 총 551명으로 소양인의 진단정확률은 68.3%로 나타났다. 또한 QSCC II+ 결과가 태음인인 경우 실제 진단된 체질이 태음인인 경우는 총 352명으로 나타났다. QSCC II+ 결과가 태음이 아니면서 실제 진단된 체질이 태음인이 아닌 경우는 총 487명으로 태음인의 진단정확률은 79.6%로 나타났다 (Table 4).

### 3. 문항에 따른 체질별 응답률에 대한 분석

QSCC II+는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번부터 12번까지는 선다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선지를 1개만 고르는 방식이다. 이후 13번부터 54번까지는 진위형으로 자신의 일상적인 느낌이나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만 응답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 포함된 표본들 중 태양인이 8명으로 다른 체질에 비해 그 수가 극히 적은 점을 고려하여 태양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도로 제시하기로 하며, 각 문항에서 선지에 따른 체질별 응답률을 분석하였고, 이에 대한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수행하였다.

#### 1) 선다형 문항의 체질별 응답률

1번부터 12번까지의 모든 문항에서 체질에 따른 문항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 2) 진위형 문항의 체질별 응답률

13번부터 54번까지의 문항에서 체질별 응답률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차분석 및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체질에 따라 문항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문항과 없는 문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질에 따라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13, 14, 15, 16, 17, 18, 19, 20, 23, 24, 26, 27, 28, 31, 33, 35, 36, 37, 40, 44, 45, 47, 49, 50, 51, 52번이었다. 체질에 따라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21, 22, 25, 29, 30, 32, 34, 38, 39, 41, 42, 43, 46, 48, 53, 54번이었다.

#### 4. 태양인의 응답 경향 분석

선다형 문항에서 기존의 태양척도와 비교했을 때, 응답경향이 일치하는 문항은 3, 6번으로 나타났다. 3번 문항에 답한 7명의 태양인 중 4명이 “①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에 답하였으며, 6번 문항에 답한 태양인 5명 중 3명이 “④ 가슴이 벌어지고 견실하다.”에 답하였다.

진위형 문항에서 기존의 태양척도와 비교했을 때, 응답경향이 일치하는 문항은 13, 24, 28, 35, 40번이었다. 13번 문항에서는 8명 중 7명이 응답하였고, 24, 28, 35번 문항에서는 6명이 답하였다. 40번 문항에서는 5명이 답하였다.

Table 4. The Diagnostic Discrimination Abilities by Current Discriminant Function of QSCC II+

		Actual Group			
		Socumin	Soyangin	Taeumin	Taeyangin
QSCC II+	Socumin	122	177	66	2
	Soyangin	12	169	57	5
	Taeumin	8	83	352	1
	Total	142	429	475	8

## IV. 考察

### 1. 새로운 척도문항 추출의 필요성

QSCC II+의 개발과정에서는 『東醫壽世保元』 등의 원문을 바탕으로 하여 사상인의 진단을 객관화하기 위해 개발된 QSCC의 본래 취지와 달리 단순히 체질별 응답률의 분포와 경향성에 따라 척도문항이 변경되어 왔다. 이런 선행연구에서의 통계적 방법으로 인해 문항 개발의 근거가 되는 원문의 내용과 해당 문항의 실제 척도가 상이하게 구성되기도 하였다. 이는 QSCC II+의 본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고 또한 실제 체질 진단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선정된 척도는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에서 표본의 체질별 응답률과 체질별 응답률의 차이의 유의성 등을 고려하여 문항척도를 다시 선정하고자 한다.

### 2. 사분위수를 이용한 유의미한 응답률 기준 결정

기존 연구에서는 체질별로 의미가 있는 척도의 기준을 정할 때 다른 체질과 비교하였을 때 해당 문항의 응답률이 10%p 이상 높게 나타난 경우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체질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응답률이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특정 체질의 응답률이 다른 체질에 비해 10%p 이상 높다는 이유만으로 그 체질의 척도문항이 될 수 있다. 이 이유로 해당 문항이 특정 체질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척도로서의 변별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전반적인 응답률이 낮을 때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분위수(Quartile) 개념을 활용하여 각 문항에 대한 응답률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25%와 하위 25%에 해당됨과 동시에 응답률의 체질별 차이가 유의미한 문항들을 새로운 척도문항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사상의학 분야

에서는 사분위수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준이 적용된 연구는 없지만, 금융<sup>8</sup>이나 보건<sup>9</sup> 등 다른 분야에서는 연구에 실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분위수를 이용하여 응답률 기준을 설정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문항의 유형에 따라 응답률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항의 유형별 상위 25% 및 하위 25% 응답률을 적용하였다.

### 3. 선다형 문항에서 새로운 유의미한 척도문항 추출

단일 설문지 내에서 문항의 유형이 상이한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현재 선다형 문항들에 대한 각 선지를 진위형 문항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또한 응답률이 다른 체질에 비해 높은 경우만 체질척도로 사용된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응답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도 해당 체질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운 문항을 추출하고자 하였다. 응답률의 기준은 사분위수(Quartile) 개념을 활용하여 상위 25%와 하위 25%를 선정하였다. 선다형 문항에서의 상위 25%의 응답률 기준은 39.7%이었고, 하위 25%의 응답률 기준은 14.95%로 나타났다. 세 체질 모두 응답률이 상위 25% 또는 하위 25%인 경우 그 문항은 체질 척도로서의 변별력이 없다고 보았다.

### 4. 진위형 문항에서 새로운 유의미한 척도문항 추출

진위형 문항에 대해서도 상위 25% 또는 하위 25%의 응답률을 보이는 문항들을 선별하였으며, 이후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체질별 응답률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들을 제외하였다. 이 때 진위형 문항의 상위 25% 응답률의 기준은 60.425%였으며, 하위 25% 응답률의 기준은 36.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QSCC II+ 문항들 중 새 척도문항으로 선정된 것은 총 14개로 대부분 소음척도 또는 태음척도였다. 소양척도는 단 4개뿐으로 이 중 3개는

다른 체질척도와 동일한 문항을 공유하였으므로, 기존의 진위형 문항 중 단독의 소양척도는 단 1개뿐이었다.

Table 5. Newly Revised Scales of QSCC II+: Multiple-choice Type

Revised question	Yes	No
당신의 체격은 큰 편입니까?	TE	SE,SY
당신의 체격은 작은 편입니까?	-	TE
당신의 체형은 뚱뚱한 편입니까?	TE	SE,SY
당신의 체형에서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습니까?	-	SE
당신의 체형은 상하체가 비슷합니까?	SE,SY	-
당신의 체형은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합니까?	-	SY
당신의 체형은 엉덩이부위가 잘 발달하고 가슴부위가 빈약합니까?	SE	-
당신은 골격이 굵고 살이 쪼면 편입니까?	TE	SE
당신은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습니까?	SE	TE
당신의 가슴은 넓고 잘 발달되어 있습니까?(비만형)	TE	SE
당신의 가슴은 빈약하고 구부정합니까?(세장형)	SE,SY	-
당신의 가슴은 넓고 튼튼한 편입니까?(근육형)	-	SE
당신의 가슴은 벌어지고 견실합니까?	-	TE
당신은 시원한 음식을 좋아합니까?	-	SE
당신은 평소 손,발이 따뜻한 편입니까?	TE	-
당신은 무게 있고 느리게 걸습니까?	TE	-
당신은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앞걸음합니까?	SE	-
당신은 걸음걸이가 꼳꼳합니까?	-	TE
당신은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합니까?	-	SE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합니까?	SE	-
당신은 활동적이고 용감합니까?	-	SE
당신은 용모가 의젓하고 격식을 차리는 편입니까?	SE	-
당신은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습니까?	SE	-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갑니까?	-	SE
당신은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합니까?	-	SE,SY
당신은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입니까?	SE	-

Table 6. Newly Revised Scales of QSCC II+: True-false Type

No.	Question	Yes	No
13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	SE
14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	SE
16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앉을 수 있다.	SE,TE	-
17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SY,TE	-
19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	SE
20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SE	-
2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	SE
26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	SE
2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SY,TE	-
35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	SE,TE
3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SE	-
44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SY
51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SE,SY	-
5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SE	-

Table 7. New Discriminant Function of QSCC II+ by Revised Scales

소음판정	= 1.606×소음점수 + .736×소양점수 + .973×태음점수 - 10.456
소양판정	= 1.071×소음점수 + .971×소양점수 + 1.014×태음점수 - 7.276
태음판정	= 1.077×소음점수 + .301×소양점수 + 1.863×태음점수 - 8.884

Table 8. Improved Diagnostic Discrimination Abilities by New Discriminant Function of QSCC II+

		Actual Group			
		Soeumin	Soyangin	Taeumin	Taeyangin
QSCC II+	Soeumin	100	125	50	1
	Soyangin	36	234	96	6
	Taeumin	6	70	329	1
	Total	142	429	475	8

## 5. 새로운 판별식의 구성과 판별식의 진단정확률을 검증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선별된 체질척도를 반영하여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이 제시된 판별식은 다음과 같다. Table 7에서 산출된 소음판정, 소양판정, 태음판정의 각 점수 중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쪽을 해당 체질로 판별한다.

위의 판별식을 적용한 결과를 기존의 표본과 비교한 결과 소음인의 진단정확률이 기존의 74.9%에서 79.3%로 상승하였으며, 소양인의 진단정확률은 68.3%에서 68.4%로, 태음인의 진단정확률은 79.6%에서 78.8%로 변화하였다. 이 방법은 선다형 문항을 진위형으로 바꾼 후에 응답률에 유의성이 있는 항목만을 선별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 전반적인 체질의 진단정확률을 상승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Table 8).

## V.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강민수의 석사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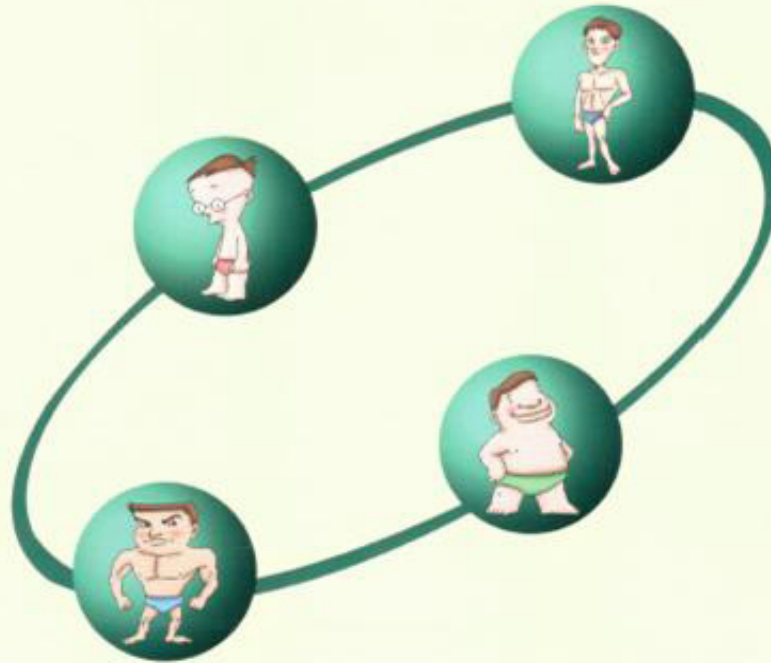
## VI. References

1. Lee MH, Hong SY.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Lee Jae Ma's Four Types of Essential Physical Constitution and Physical From index - Concerning Male and Female 3rd Year High School Student in Some Urban and Rural Areas -. J of Const Med 1990;2(1):71-85. (Korean)
2. Huh MH, Song JM, Kim DL, Koh BH. A Study on the Morphological Diagrammings of Four Constitutions. J of Const Med 1992;4(1):107-148. (Korean)
3. Chi SE, Han SK, Choi SM. Theoretical study on the quantification of constitutional information using bioinformatics. J of Sasang Const Med 2001; 13(1):17-23. (Korean)
4. Han SK, Chi SE, Choi SM. Study on the analysis of constitutional genes by HLA typing. J of Sasang Const Med 2001;13(1):97-103. (Korean)
5. Shin MR, Kim DL. An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Sound Characteristics and Sasang Constitution by CSL. J of Sasang Const Med 1999;11(1):137-157. (Korean)
6. Kim SH, Ko BH, Song IB. A Validation Study of

- Questionnaire of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QSCC). *J of Const Med* 1993;5(1):67-85. (Korean)
7. Grenier M, Gardner IA. Epidemiologic issues in the validation of veterinary diagnostic tests. *Prev Vet Med* 2000;45:3-22.
  8. Bae YS. Credit Ratings Quality and Business Cycle: Quantile Regression Approach. *Review of Financial Information Studies* 2012;1(1):79-95. (Korean)
  9. Kim NH, Hwang SJ, Choi JA, Mun SJ, Chung WG. Quartile present teeth related socioeconomic status and oral health behaviors among Korean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2009;33(2):254-66. (Korean)



VII. 簿錄



QSCC II +

Questionnaire for the Sasang Constitution Classification

# 사상체질진단검사+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의학과

본 검사는 귀하의 체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체질이란 사람마다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서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 실문에 답하는 요령

1. 다음 페이지의 설문 문항을 주의깊게 읽은 다음, 자신이 일상적으로 느끼고 행동하는데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하십시오.
2. "의식적"으로 임관성있게 응답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응답하도록 하십시오.
3. 시간제한은 없으나 어느 한 문항을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십시오.
4. 다른 사람의 판단에 구애 받지 마시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답을 선택 하십시오.
5. 대답하는 요령에 의문이 있으시면 지금 검사자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QSCC TEST  
— — — —  
사상체질분류 검사설문지



A

아래 문제들의 예문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의 번호를 답안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호는 반드시 답안지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당신의 체격은 어떻습니까?

- ① 체격이 큰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체격이 작은 편이다.

2. 당신의 체형은 어떻습니까?

- ① 뚱뚱한 편이다.      ② 보통이다.      ③ 마른 편이다.

3. 당신의 체형에서 상하체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① 상체가 하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② 하체가 상체에 비하여 발달되어 있다.  
③ 상하체가 비슷하다.

4. 다음중 당신의 체형은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목덜미부위가 잘 발달하고 허리부위가 빈약하다.  
② 가슴부위가 잘 발달하고 엉덩이부위가 빈약하다.  
③ 허리부위가 잘 발달하고 목덜미부위가 빈약하다.  
④ 엉덩이부위가 잘 발달하였고 가슴부위가 빈약하다.

QSCC TEST  
 — — — —  
 사상체질분류 검사설문지

5. 전체적인 외모와 골격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골격이 굵고 살이 쉰 편이다.      ② 골격이 작고 균형이 잡혀있다.  
 ③ 보통이며 다부진 체격이다.
6. 당신의 가슴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넓고 잘 발달되어 있다. (비만형)      ② 빈약하고 구부정하다. (세장형)  
 ③ 넓고 튼튼한 편이다. (근육형)      ④ 가슴이 벌어지고 견실하다.
7. 당신은 다음중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① 뜨거운 음식      ② 따뜻한 음식      ③ 시원한 음식      ④ 차가운 음식
8.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평소 손, 발이 찬 편이다.      ② 평소 손, 발이 따뜻한 편이다.
9. 당신의 걸음걸이는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걸음이 느리고 무게 있게 걷는다.      ②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고 압전하다.  
 ③ 걸음이 빠르고 몸을 흔든다.      ④ 걸음걸이가 깨끗하다.
10.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평소에 땀이 많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상쾌하다.  
 ② 평소에 땀이 많지 않고 조금만 땀을 내도 피곤하다.  
 ③ 땀을 흘려도 그다지 피곤하지 않다.

QSCC TEST  
— — — —  
사상체질분류 검사실문지

11. 당신은 다음중 어디에 해당되니까?

- ① 거침없고 과단성이 있다.                      ② 활동적이고 용감하다.
- ③ 용모가 의젓하고 격식을 차리는 편이다.    ④ 태도가 온순하고 꾸밈이 없다.

12. 다음중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일처리, 또는 생활습관)

- ① 무슨 일이든지 물러서지 않고 밟고 나간다.
- ② 일을 벌려 놓기만 하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한다.
- ③ 움직이기보다는 조용히 혼자 일을 추진하는 편이다.
- ④ 한곳에 있으려고만하지 나다니려하지 않는 편이다.

## QSCC TEST

사상체질분류 검사설문지



**B** 아래의 설문 문항들을 주의 깊게 읽은 다음, 자신이 일  
상적인 느낌이나 행동과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문항에  
모두 v표하여 주십시오.

(V표시는 반드시 답안지에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처리와 장단점

13. 무슨 일이나 시원스럽게 처리한다.
14. 활발하고 대가 센 편이다.
15. 메시에 이해를 따지지 않고 나서는 편이다.
16. 진득하게 한곳에 오래 있을 수 있다.
17. 치밀하고 꼼꼼한 편이다.
18. 가까운 사람끼리만 어울리는 편이다.
19. 사람을 사귄 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쉽게 잘 사귄다.
20. 사회적인 일보다 개인적인 일에 열심이다.
21. 내면적인 것보다 외면적인 것을 더 중요시한다.

**QSCC TEST**  
사상체질분류 검사설문지

- 22. 사람을 사귈 때 이것저것 따져서 쉽게 사귀지 못하는 편이다.
- 23. 단정하고 신중하다.
- 24. 성격이 시원시원하다.

**대인관계**

- 25. 다정 다감하여 남을 잘 달랜다.
- 26. 각종 사회활동 모임에 즐거이 참여한다.
- 27. 나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부지런한지 아닌지를 금방 알아차린다.

**평소의 마음**

- 28. 항상 급하게 서두르는 편이다
- 29. 처음에 낯알에 잘 나서지 못한다.
- 30. 평소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31. 평소에 신경이 예민한 편이다.
- 32. 인내심이 많다.
- 33. 행동이 경솔한 편이다.
- 34. 별일이 아닌데도 조바심치며 불안해한다.
- 35. 남성적인 면이 많고 여성적인 면이 적다

QSCC TEST  
 — — — — —  
 사상체질분류 검사설문지

문제점

- 36. 별것 아닌 사소한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곤 한다.
- 37. 앞에 나가서 말을 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어렵다.

감정특성

- 38. 평소에는 명랑하지만 감정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 39. 마음이 상했더라도 겉잡은 척 한다.
- 40. 업신여김을 당하면 화가 나서 주체할 수 없다.

행동특성

- 41. 내 생각이 옳다고 확신되기까지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 42. 아는 척 하거나 과시하는 경우가 많다.
- 43. 자신에게는 소홀히하고 남에게는 깍듯이 대한다.
- 44. 남앞에 잘 나서지 못한다.
- 45.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하는 편이다.
- 46. 소심하여 항상 불안한 편이다.
- 47. 여성적인 면이 많고 남성적인 면이 적다.
- 48. 웬만한 일을 성취하였어도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다.



QSCC TEST  
— — — —  
사상체질분류 검사설문지

몸 상태

- 49. 이유없이 토하거나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적이 있었다.
- 50. 몸이 안 좋을 때 땀을 내면 개운하다.
- 51. 몸이 안 좋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 52. 평소에 기운이 없어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자주 있다.
- 53. 온몸과 다리가 힘이 빠져 움직이기가 어려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 54. 음식을 먹은 후 가슴과 배가 더부룩한 증상이 자주 있다.





**경희의료원**

한방병원 사상체질의학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  
TEL. 958-9229/958-9230